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 (II)*

- 북한의 가족·아동·소비·시간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

South and North Korean Living Cultures :
Their Differences and Integration (II)*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춘

교수 이기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은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부교수 김대년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박영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전임강사 최연실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Prof. : Rhee, Kee Choon

Prof. : Lee, Ki-Yo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l Univ.

Prof. : Rhee, Eun-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 : Yi, Soon-Hyung

Dept. of Family Resource Studies & Housing, Seowon Univ.

Assoc. Prof. : Kim, Dae-Nyun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Soonchunhyang Univ.

Assoc. Prof. : Park, Young-Sook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Sangmyung Univ.

Full-time Instructor : Choi, Younshil

● 목 차 ●

I. 서론

II. 생활문화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 공모과제의 일부임.

<Abstract>

Living culture, which is a pattern of peoples' everyday living, is influenced by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as well as ideology of the society.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have been segregated during the past 50 years with diffe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ideologies, resulting different living cultures, even though those two societies share the same traditional culture.

This project was develop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living cultur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their successful integration. The second part of the project was concentrated on finding out the current living culture of North Korean families.

Based on indepth interview with ten people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after 1990, empirical survey with 158 subjects was conducted. The subjects with various demographic backgrounds were asked about lifestyles concerning family living, child rearing, consumption, time management that they experienced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This study revealed differences in many aspects of living cultur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relationships were suggested in four lifestyl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ground for more information to the following study that will explore the cue of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in living culture.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제2차대전 이후 냉전이테올로기와 외세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분단은 자본주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는 남한과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 양 체제의 긴장과 대립을 반세기 넘게 지속시켜왔다. 또한 분단은 남북한의 이질화를 가속시켜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 당하는 상태가 될 것이므로, 남북한의 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민족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왔고,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담론도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의 통합을 뜻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조형, 1997).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되고, 남북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다루는 수준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통일에 대한 논의도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사회의 통합¹⁾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은 온전한 의미에서 체제의 통합을 이루게 하고, 정치, 경제를 받쳐주어 유연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현실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그 상태를 촉진시키는 통합에 유리한 조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조건들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동질성이다. 사회적 동질성은 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 동질성이 높을수록 통합지향적 계획이 성공하기가 쉽다²⁾. 여기서 남북한 사회의 동질

1) '통합(integration)'의 의미는 개별적 단위를 이루는 부분들이 상호의존관계에서 일관성있는 체계를 갖춘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Nye, J. S. Jr. (1968),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21: 855-880. 이 용필 외(1992)에서 재인용).

2) Jacob, P. E. & Teune, H(1964), "The integrative process: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K. Duetsch et al.(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PA: J. B. Lippincott, 이은숙(1997)에서 재인용.

성의 모색을 통한 사회통합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는 작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 사회의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동질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시도되었던 논의를 살펴보면, 많은 논자(論者)들이 남북한의 가정생활 영역에서 그 동질성을 발견한다(이문웅, 1996; 이은숙, 1993). 분단의 시기 동안, 남한의 경우에는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과 근대화, 산업화 등의 영향에 의해,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제도와 가정의 혁명화 사업 등의 결과로서 전통적인 가정생활의 면모가 바뀌고 또 이질화된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지만, 가정생활은 여전히 전통적 가치가 잔존하는 부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동질적인 요소를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³⁾. 즉 다른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생활도 분단의 영향으로 남북간에 상당히 이질화가 진행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정치나 경제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특정사회의 전통적 규범이 잔존함으로써 남북간에 가장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 이질화의 심화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기반하여, 이러한 이질화 현상의 극복을 생활문화의 통합을 통해 모색해 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의 생활문화의 이질화 현상을 구체적인 생활문화 영역으로 나누어 심층 진단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생활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토대로 동질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한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생활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가정생활문화에 초점을 둔다.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생활은 일상생활의 주요부분을 이루며,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국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생활의 여러 영역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현존하는 실제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세기에 걸친 문화적 단절은 가정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쳐, 가정경제 및 소비문화, 생활시간 및 여가문화, 의생활문화, 식생활문화, 주생활문화에서의 이질화 현상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질화는 또한 물적 환경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의 심리적 관계 및 사회화에도 차이를 가져와 아동양육과 교육문화, 청소년의 사회화 문화,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생활문화의 이질화와도 관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생활은 가정내 인적 체계와 관련되는 가족생활, 아동생활과 물적 체계에 관련되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리고 상호작용체계에 관련되는 소비생활, 시간생활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가정생활의 이질화 현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과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을 관찰·인식함으로써 상대문화의 인정과 수용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서는 이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의 생활문화의 통합과 새로운 창조적 계승 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이라는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이기춘 외, 1997)의 후속적 성격을 갖는다. 이미 수행된 연구에서는 문헌이나 영상자료 등을 통해 북한의 생활문화의 실태를 조사하되, 특히 이질화 현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10명의 탈북자들을 면접하고 구조화된 질문지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조사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3) 이같은 논의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컨대, 조혜정(1996)은 남한에서 일고 있는 문화적 논의가 주로 분단 이전의 공통성을 강조하거나 단절로 인한 이질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뉘며, '동질성의 확대'라든지 '이질성의 극복'이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동질성으로 '가족주의'와 '권위주의' 등의 문화적 원리를 언급하는데, 실제로 이런 동질성은 '다름'을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다루고자 하였다. 첫째, 북한의 가족생활, 아동생활, 소비생활, 시간생활 등의 생활양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생활문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생활문화를 중심으로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단초를 모색해 보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탈북자들이 지각한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점 진술을 통해 이질화된 남북한 생활문화의 면모를 파악하였다.

II. 생활문화 고찰

1.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사회통합 접근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통일이 갖는 다차원성으로 인해 여러 영역에서 접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남북한 사회통합이라는 주제가 새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때, 남북한간에 상존하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희석시킬 수 있고, 향후 통일과 함께 발생할 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충격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으며, 통일로 인한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장호, 1997)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영역을 통해 남북한의 사회통합에 접근해 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의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첫째, 가장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수준에서 남한과 북한 사회의 통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가정생활을 둘러싸고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생활풍습을 통해 남북한 고유의 전통과 민족문화의 연속성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⁴⁾, 또 남북한 가정생활에서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통해 생활문화의 이질성이나 동질적 측면을 파악하게 해준다⁵⁾.

둘째, 가정은 일차적이고 원초적인 인간관계이자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 혹은 세포와 같은 작용을 하는 터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가족은 이념이나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뛰어넘어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의 변화를 이루는 데 전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가정의 역할에 대해, 전자는 가정생활의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 그 독자성이나 보편성, 자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정이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반면, 후자는 가정이 사회의 기능유지 등과 관련해 사회적 영향력을 민감하게 주고 받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기반하여 사회체제를 뒷받침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는 수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이효재, 1994).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사회통합에서의 가정의 역할을 중시하는 측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분단 후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은 사회 전반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주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문화는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의 실태 및 본질, 그리고 생활문화 영역에서의 문화통합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에,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통일에 대비해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생활문화

남북한사회의 문화 이질화와 통합과제를 염두에 두고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문화현상을 접근하고자 한다. 분단은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극렬하게 대립된 지배이데올로기를 작용시켜,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제도와 상황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념적 토대는 구체적인 생활영역에까지도 효과를 파급시켜 그 사회성원의

4) 주장현(1994, 1997)의 연구를 참조할 것.

5) 또 하나의 문화 통일소모임(1996), 이기춘 외(1997)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의식이나 행태를 규정하기도 한다. 가정생활은 바로 이러한 사회정치적 현상인 분단의 영향력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으로서, 생활문화 또는 생활양식이라는 용어와 밀접적으로 관계되는 존재의 장(場)이다.

여기서 먼저 생활문화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총합이며(전경수, 1994), 생활문화란 개인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가정생활에 관련된 가치나 태도 등과 실제 아동사회화·가족관계·경제 및 소비·시간관리·의·식·주생활 등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생활문화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파악될 수 있고, 또 사고방식은 생활양식 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에서, 생활문화를 가족생활, 아동생활, 시간생활, 소비생활, 의·식·주생활 등의 가정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생활문화는 사회적으로 보면 그 사회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심영희, 1996). 여기서 생활세계는 물질적 생산을 하는 체계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상징적 재생산 혹은 사고양식의 구성 등을 포함한다(Harbermas, 1987). 일상생활은 개인의 사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수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일상적인 구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생활문화는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는 생활영역이다. 특히 생활문화는 일상적 삶이 행해지는 소재, 즉 공간과 시간, 의복, 주거, 음식, 출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윤택림, 1996)로서,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의 근접환경(유아보육시설, 교육시설, 의료 및 보건 시설, 오락 및 여가시설 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문화가 펼쳐지는 가장 구체적인 영역인 가정과 지역사회 특성을 포함한 근접환경 영역이, 남북한사회에서 분단으로 인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문화통합의 대상으로서 포섭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는지를 탐색하는 일은 필요하고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3. 가족, 아동, 소비 및 시간생활양식

가정생활을 둘러싼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에 접근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활양식을 다루게 된다⁶⁾. 먼저, 가족생활은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일상적 생활세계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의식과 가치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문이나 가족간 유대를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의식이 한 사회체제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고도 의미있는 작업이며, 특히 북한의 경우, 이를 남한의 가족간 결속력이나 유대 정도와 비교해 보는 것은 통일 후 가족의식의 회복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리라고 본다. 가족생활양식은 가족의 형성 단계인 미혼남녀의 교제에서부터, 혼전관계, 성(性)에 대한 의식, 배우자선택 과정,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의 해체에 이르기까지 하는 가족문제와 갈등의 양상, 노부모 자녀관계나 친족관계 등을 포함한다. 가족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내부시각으로부터 접근해 보는 이러한 분석은 일상적인 생활세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한 그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두 번째로, 아동생활양식은 주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사회화를 포괄한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사회화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서 달리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화이념의 차이는 당연히 아동의 출산과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가 성장하면서 받는 학교교육의 내용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성 정체성이나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확립에도 영향을 주며 그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자로서의 정치사회화는 물론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 사회화는 신생아의 출산과 영, 유아의 보육소(탁아소)

6)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 영역중 가족, 아동, 소비 및 시간생활양식을 다루고, 의, 식, 주생활 양식은 후속연구에서 다룬다.

양육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청소년기 정치사회화, 성 사회화, 직업사회화를 포함한다.

세 번째로, 소비생활양식을 다룬다. 가정의 경제 생활은 그 사회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므로 남북한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과거에는 소비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개인의 선택에 기초한 사적(私的)인 이윤 추구였고 자원의 소모가 강조되었으나,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소비 자체도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의 상호존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를 문화현상으로 파악하고 문화적 분석을 적용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대두하고 있다. 소비는 문화체계 전체가 기초를 두고 있는 체계적 활동 및 포괄적 반응의 양식이며(Baudrillard, 1970), 문화와 소비는 오늘날 하나의 체계로서 작용하고 소비자들은 문화적 의미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소비행위는 곧 문화행위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McCracken, 1988). 소비생활문화는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데, 소비생활 만족도 및 내구재 소유열망, 시장거래, 소비자의식, 생활비 지출 및 관리, 자녀용돈관리, 혼례소비문화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간생활을 살펴보게 된다. 생활시간은 그 사용 및 배분에 따라 생활의 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또 생활 시간 구조를 통해 한 사회의 생활양식과 삶의 모습 및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간, 국가간 비교연구에 아주 유용하다. 한 사회의 성원들이 하루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직업노동시간과 휴식시간과의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남녀가 시간 배분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이고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은 시간배분 및 관련주제의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북한생활을 체험했던 국

내 거주 탈북자 집단이다. 조사대상자 특성의 고른 분포를 위해 연령과 직업, 교육수준, 탈북전 거주지(평양 대(對) 지방) 등을 고려하였으나, 자료의 참신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199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의 선정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탈북자의 선정과 접촉에는 이들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우편으로 조사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북한의 생활문화를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북한의 생활문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들은 북한생활과 각 생활양식 영역(가족, 아동, 소비, 시간생활)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연구자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이 질문들은 북한 생활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에 접근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들과 폐쇄형 질문들이 혼합되었는데, 가족생활양식은 23개, 아동생활양식은 25개 문항, 소비생활양식 20개 문항, 시간생활양식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문항수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생활양식: 가족의 형성(결혼전 과정) 4개 문항, 부부관계 4개 문항,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3개 문항, 가족문제 3개 문항, 친척들과의 관계 3개 문항, 가족의례 6개 문항
- 2) 아동생활양식: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 17개 문항(희망자녀수, 남아선호, 성장기대, 인성특성 기대, 부모역할인지), 자녀양육의 실제 4개 문항, 일반적인 자녀양육 3개 문항,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남한과의 차이 1개 문항
- 3) 소비생활양식: 소비생활 3개 문항, 시장거래 15개 문항, 소비생활에 있어서의 남한과의 차이 1개 문항, 소비생활에서 있어 남한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점 1개 문항
- 4) 시간생활양식: 하루일과 8개 문항, 집안일 4개 문항, 여가활동 3개 문항, 하루일과에서 남한과의 차이점 1개 문항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실시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 문항 작성 및 문항 양호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조사는 1997년 12월에 10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면담을 하고 질문지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탈북자들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협조를 부탁하였다. 다음 단계로 이 담당자에게 질문지를 회신용 봉투와 함께 발송하여 탈북자들에게 전달하고, 그 후 탈북자들이 응답을 해서 우편으로 회신을 하는 형식으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총 20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발송하였으나, 163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그 중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7)

항 목	구 분	빈도 (%)	항 목	구 분	빈도 (%)
연 령	29세 이하	30 (22.6)	탈북 전 거주지	도시	114 (75.5)
	30-39세	55 (41.4)		농촌	37 (24.5)
	40-49세	26 (19.5)	소계: 151(100.0)		
	50세 이상	22 (16.5)	출생지	도시	91 (61.5)
평균(SE)/38.0(.94)	소계: 133(100.0)	농촌		57 (38.5)	
성 별	남	107 (76.4)	소계: 148(100.0)		
	여	33 (23.6)	교 육 수 준	고등중학교 중등반 졸	6 (4.5)
소계: 140(100.0)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		23 (17.3)	
탈북 전 직업	노동 계층	30 (23.3)		교원대학/고등전문학교 졸	29 (21.8)
	사무원 등 근로인텔리, 전문직	40 (31.0)		대학(종합, 단과, 사범) 졸	75 (56.4)
	학생, 유학생	8 (6.2)	소계: 133(100.0)		
	개인농어민, 자영업, 운전기사	7 (5.4)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	99원 이하	28 (22.0)
	군인, 당간부, 외화벌이꾼	25 (19.4)		100-199원	39 (30.7)
	주부 및 무직	8 (6.2)		200-299원	27 (21.3)
기타	7 (8.5)	300-499원		11 (8.7)	
소계: 129(100.0)		500원 이상		22 (17.3)	
탈 북 연 도	94년 이전	74 (48.4)	평균(SE)/521.0(107.86)	소계: 127(100.0)	
	95, 96년	38 (24.8)	가구의 월평균 지 출	99원 이하	23 (25.3)
	97년	41 (26.8)		100-199원	20 (22.0)
소계: 153(100.0)		200-299원		11 (12.0)	
입 국 연 도	94년 이전	35 (22.7)		300-499원	10 (11.0)
	95, 96년	53 (34.4)		500원 이상	27 (29.7)
	97년	66 (42.9)	평균(SE)/640.0(119.8)	소계: 91(100.0)	
	소계: 154(100.0)		가입한 조 직	노동당	67 (44.7)
탈북 가족 원 수	2명 이하	17 (11.6)		사로청	56 (37.3)
	3-4명	72 (49.4)		직업 총동맹	15 (10.0)
	5명 이상	57 (39.0)		농업근로자 동맹	2 (1.3)
	소계: 146(100.0)			여성 동맹	10 (6.7)
탈북 전 가족유형	핵가족, 부부가족	105 (72.5)	소계: 150(100.0)		
	직계가족, 확대가족	30 (20.7)	동반가족	있다	63 (52.9)
	단독 가족	7 (4.8)		없다	56 (47.1)
	소계: 145(100.0)		소계: 119(100.0)		

부실기재된 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8부의 질문지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목적에 맞추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인 통계치를 주로 사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38세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약 7:3이며, 탈북전 직업은 전문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노동계층, 외화벌이꾼으로 북한 거주당시는 상층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의 탈북년도는 94년 이전이 반수에 달하며, 입국년도는 97년이 가장 많아 비교적 최근에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탈북전 가족원수는 3-4명이 가장 많고, 5명 이상이 그 다음으로 평균 4.19명이었다. 탈북전 가족유형은 핵가족, 부부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본 연구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주된 가족형태가 핵가족(장하진, 1996)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탈북전 거주지와 출생지는 모두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대학 졸업이상으로 북한사회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가구월평균 소득수준과 가구월평균 지출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월평균 소득과 지출의 평균 수준을 살펴보면 각각 521원과 640원이었다⁷⁾.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동당 당원이었는데, 앞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직업 수준과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시켜볼 때, 북한사회에서는 상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시 가족을 동반한 경우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비율이나 동반한 쪽이 약간 많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북한의 가족생활양식, 아동생활양식, 소비생활양식, 시간생활양식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가족생활양식

1) 가족의 형성-결혼전 과정

먼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이성교제와 성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편이다. 청소년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도 남녀교제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교제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최근들어서는 점차 자유로운 이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우자 선택방식으로는 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35.6%), 아직까지는 중매혼이 많다(37.8%). 실제로 조사에 응한 북한 탈북자들 대부분은 결혼상대자를 고를 때,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연애와 중매가 섞인 방식도 선호(25.9%)되었다.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본 배우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조건에는 당성과 성분이 주로 거론되며,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점점 더 경제력이나 재산 등도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물품을 만지거나 현금을 접할 수 있는 판매원이나 운전수, 외화벌이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인기있는 배우자로 등장한다.

예전보다 자유로워진 남녀관계로 인해 도시 지역

7) 1992년을 기준으로한 주요 직종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당·정기관의 부장급이 300-350원 정도이고(내외통신사, 1994: 103), 부부장급의 월 기본생활비가 216,40원 정도이다(서동익, 1995: 279).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주로 9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므로 북한사회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소득과 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상태이다. 데이트 상대는 주변에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친척의 소개로도 만난다. 데이트 장소로는 주로 대동강가나 모란봉 등 공원이나 영화관 등이며, 거리 등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데이트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고 한다.

미혼남녀의 자유로운 교제 분위기의 확산과 더불어 성에 대한 사고도 차츰 개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상외로 북한 사람들의 결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은 자유로운 편이어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49.3%)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어떠한 경우든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2.4%).

2) 부부관계

북한 부부관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분리된 성역할의식과 태도이다.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넘는 60.6%가 북한에서는 부부간의 역할구분이 뚜렷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하거나(38.5%)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는 비율이 높아서(42.7%) 북한 부부관계의 가부장적 일면을 드러낸다.

가정생활의 일 중 남편의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가족의 부양(53.5%), 집안 수리(85.1%), 연탄찍기(84.4%) 등이며, 부인의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녀돌보기(66.9%), 생활비 관리(75.0%), 집안 청소(71.6%), 취사, 조리(91%),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고 찾아오기(74.6%), 주민회의 참여(67.8%) 등으로 성별 분리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외의 자녀 공부도와주기는 부부공동의 일(53.5%)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가 궁핍해지고 고정된 수입으로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북한 주민들간에는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여성들도 밖에 나가 돈을 버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들 중에는 자기 부인이 다른 집의 부인들처럼 돈을 벌지 못한다고 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이 개방형 질문

을 통해 보고 되었다. 사실상 남성의 권위가 강한 북한에서 가정폭력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고 한다.

북한사람들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서적인 유대관계(54.3%)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다. 사회주의적인 동지로서의 결합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31.2%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가정의 혁명화' 사업 실시를 통해 가정생활이나 가족관계에 공산주의적 이념을 침투시키고자 하였으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에서의 혼외정사는 '부화사건'이라 불려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재판을 받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3)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본조사의 응답자들은 남한과 비교해볼 때 비슷한 정도로 부모나 노인을 공경하는 편이며(50.7%),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에게 해드리는 것은 자주 연락하기(76.4%), 돈드리기(70.1%), 공업품드리기(77.8%), 의료비 드리기(83.2%), 휴일이나 휴가 함께 보내기(77.1%), 바깥일이나 나들이돕기(61.4%) 등이다.

북한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주로 양로원(42.8%)이나 병원(44.8%) 등이며, 오락시설이나 교육시설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무의탁노인 복지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문제

본조사 응답자들의 거의 절반(50.0%)이 집에서 폭력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해결방식으로는 가정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만, 부부폭력의 경우 주로 여성들이 인내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주로 아버지가 키우게 되며, 어머니가 키우는 경우나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응답도 많았다. 배우자의 부화사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이혼에 이르지 않고

아유의 대상이 되지만(28.3%), 여자의 경우는 이혼에 이른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69.8%), 부부간의 성문제에 대한 이중기준을 드러낸다.

이같은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북한 가정생활에서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의식이 강하게 잔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친척들과의 관계

북한주민들은 4촌까지를 친척으로 생각하는 비율(38.1%)이 가장 높았고, 8촌까지로 생각하는 비율(26.5%)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친척들과 접촉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사촌정도의 친척들과는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거나(36.1%) 특별한 행사 때에만 만나는 편으로, 이념적으로는 아직까지 당내친(堂內親)의 개념이 남아있으나, 현실적으로 친척들과의 교류가 원활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친척들끼리 서로 돕는 경우는 결혼식(97.5%), 장례식(93.6%), 환갑(88.5%), 사고를 당했을 때(65.0%)의 순이며, 생일이나 금전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친척들끼리 돕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족의례

혼인, 장례, 제사 등과 같은 가족의례와 관련한 질문들은 주로 개방형 질문을 시도하였다. 먼저, 결혼식 장소는 주로 집이며, 가끔 친구집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장례식에는 대개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으며, 굴건제복을 입는 경우는 드물고, 팔에 삼베 완장을 두르는 정도이다. 장례는 3일장이 거의 대부분(82.4%)이며, 묘지는 주로 공동묘지를 사용하나, 가끔씩 풍수지리를 고려해서 묘자리를 보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제사를 지내는 비율은 예상외로 높았는데(77.2%), 이는 북한의 체제가 초기에는 조상숭배를 부인했다가 1960년대 이후 제사를 묵인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제사는 주로 2대까지 지내며(40.3%), 3대까지 지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21.0%)도 높은 편이었다. 묘소는 묘지가 지키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자식이나 친척들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의 아동생활양식

1) 희망 자녀 수

북한 부모들의 희망 남아수는 주로 1명(64.4%)이다. 이들의 희망 여아 수는 1명(88.1%)이 절대적으로 높다. 여아를 2명(8.1%), 3명(0.7%) 원한 것에 비하면 남아를 2명(28.1%), 3명(3.0%)은 상대적으로 높다. 딸은 1명으로 족하나 아들은 1명으로 부족하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남아 선호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희망 자녀수에 차이가 있다($\chi^2 = 17.481$, $df=4$, $p<.01$). 49세 이상 응답자는 자녀를 2명 바랐고, 48세 이하의 응답자는 자녀 1명을 희망했다. 희망하는 아들의 수도 역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chi^2 = 14.531$, $df=4$, $p<.01$). 49세 이상의 응답자는 아들을 2명 원하나 48세 미만의 응답자는 아들을 1명만 두기를 원했다. 희망아들의 수와 반대로 희망 여아의 수를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chi^2 = 10.507$, $df=4$, $p<.05$). 49세 이상의 연령에서만 딸을 2명 이상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고, 48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딸을 2명 이상 원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

희망 자녀수는 응답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다르다($\chi^2 = 11.409$, $df=3$, $p<.01$). 고등 중등반의 경우에 2명 이하의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 적고 3명 이상의 자녀수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 중간 정도의 교육 수준에서는 2명 미만의 자녀를 원하나, 교원대 이상의 고급 학력의 응답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원했다. 학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응답자들이 자녀를 3명 이상 원했다.

흥미로운 것은 탈북전 가족 유형에 따라 원하는 자녀수와 희망 아들과 딸의 수가 다르다는 것($\chi^2 = 8.597$, $df=2$, $p<.05$)이다. 탈북전 가족이 핵가족 부부형에 속하는 경우는 희망 자녀수가 대부분 1, 2명이고, 직계나 확대가족형의 응답자는 1, 2명과 3명 이상이 비슷하게 많지만, 단독가구 형태의 가족인 경우는 1, 2명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희망아들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탈북전 가족유형에 따라서 희망 아들수에 차이가 있다($\chi^2 = 9.128$,

df=2, p<.01). 탈북전 핵가족 부부유형에 속했던 응답자는 주로 희망 자녀수가 없거나 1명이고, 직계 확대가족의 유형에 속했던 응답자는 없거나 1-2명 이상의 자녀를 원했다. 그러나 단독 가구에 속했던 응답자는 없거나 1명만을 원했다.

2) 남아 선호

북한 부모들의 남아 선호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딸이 두 명 있을 때 아들을 더 낳아야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6%, 그렇지 않다는 사람 44%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로써 남아선호사상을 명확히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남아 선호의 이유로는 승계개념(75.2%)이 단연 높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10.5%)라는 가 부모의 노후 보장(6.7%)의 이유도 다소 있다.

남아 선호의 이유는 성별에 따라 그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chi^2 = 5.509$, df=1, p<.05). 즉 남자 응답자들은 여자응답자보다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여자 응답자는 남자 응답자보다 대를 잇는 이유를 더 제시했다.

3) 성장 기대

북한 부모들은 아들과 딸이 성장하여 어떤 인물이 되기를 희망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자녀가 성장하여 되기를 희망하는 인물로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당간부(43.1%), 그리고 의사, 과학자, 기술자 등의 전문가(35.4%)와 군인(21.5%)을 기대한다. 즉 자신의 능력을 펼 수 있는 직위를 원하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출세를 기대한다.

그러나 딸에게 바라는 것은 시집을 잘 가는 것, 여성다운 여성(50.0%), 전문가 및 기술자(14.6%), 예술인(14.6%)이다. 딸이 당간부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5.2%인 것은 아들의 경우 25.5%이고 아들의 경우에는 예술인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딸과 아들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 한 마디로 북한의 부모들은 아들은 유능하여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며, 딸은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의 지위

에 동승하기를 기대한다.

4) 인성 특성 기대

대부분의 북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격 특성으로 지적한 것은 정직성(76.6%)이다. 다른 어떤 성격보다 정직함을 꼽은 것은 북한 부모들이 강직한 사람을 원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은 것이 개성(8.5%)이었다.

자녀의 성격 중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지적한 것은 불순종(53.3%), 이기심(25.8%)이다. 그 외에는 무책임(15.0%)과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것(5.8%)이다. 부정적 가치로 지적된 것들은 모두 집합주의적 가치, 가족주의적 가치에 상치되는 인성 특성이다. 이중 윗사람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나쁜 행동으로 대부분이 지적했는데, 이는 북한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 방법으로 위계질서를 강력히 고수하며 이를 일찍이 가정에서 아동사회화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아동사회화의 방법은 곧 그 사회의 통치 전략과 부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부모역할 인지

북한 부모들은 부모의 역할로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화목한 생활(39.1%)을 가장 중시했고 자녀의 생활지도(27.6%)를 다음으로 중시했다. 그리고 식생활 해결(19.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는 일(10.7%)이나 자녀와의 대화(3.3%)에 대한 응답도 적지 않았다.

북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별로 없다는 응답이 28.6% 나오기도 했지만, 글자 가르치기(20.0%), 사상 교양(20.0%), 놀이기구 학용품 수선(8.6%), 옷과 음식 사주기(4.8%)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무엇이든 아동이 요구하는 것을 해준다고 응답한 경우(4.8%)도 있었다.

부모 역할 응답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유의하게 달라서($\chi^2 = 32.163$, df=16, p<.01), 잘 먹이는 것, 화목한 생활, 생활지도, 공부지도에 각각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25세 이하의 응답자는 생활지도에

26세부터 30세 응답자는 잘 먹이는 것, 31세부터 38세 응답자는 화목한 생활에, 39세부터 48세 응답자는 잘 먹이는 것부터 화목한 생활에, 49세 응답자는 생활지도와 화목한 생활을 강조했다.

6) 자녀양육 수행

자녀의 주된 양육자는 어머니(68.0%)이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아동의 주 양육자는 할머니가 되는데, 친할머니(12.3%)와 외할머니(13.1%)로 친가와 처가의 양육 부담을 비슷하게 지고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을 총체적으로 물었을 때,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양육방식(35.0%),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방식(29.9%)을 주로 사용했다. 이 두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64.9%)는 주된 양육방식을 대별한다고 하겠다. 약 1/4의 부모들이 민주적 양육방식(24.8%)을 사용하고 있으며, 1/10의 부모들이 방관적 양육방식(10.3%)을 사용한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자녀양육 방법에 차이($\chi^2 = 24.504$, $df = 12$, $p < .05$)가 있었다. 방관적 양육방식은 7(7.1%), 통제적 양육방식은 32(32.3%), 순종적 양육방식은 32(32.3%)이고 민주적 양육방식은 28(28.3%)이다. 이러한 양육방식을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25세 이하는 세 양육방식에 별 차이가 없지만 26세부터 30세 응답자는 통제적 순종적 양육방식을, 31세부터 38세 응답자는 순종적 민주적 양육방식을, 39세부터 48세 응답자는 통제적 양육방식을 49세 이상은 민주적 양육방식을 가지고 있다.

3.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1) 소비생활 만족도 및 내구재 소유열망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생활상은 구체적인 소비생활 양태에서 그대로 파악된다. 귀순자들이 말하는 북한에서의 소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히 낮았다. 소비생활이 만족스러웠다는 경우는 1.3%에 불과했고, 특별히 만족스럽지도 불만스럽지도 않았다는 경우가 45.8%였으며, 불만스러웠다는

경우가 반수가 넘는 52.9%에 달했다. 특히 고등중학교 중등반이나 교원대/고등전문학교 출신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농민시장을 통해 구입한 물품들을 살펴보면,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한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물건으로는 일상 가전제품(TV, 냉장고, 비디오, 세탁기, 녹음기 등)이 53.5%로 가장 많았다. 개별 품목별로 보면 TV(24.9%)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냉동기(냉장고 11.4%)와 승용차(11.4%)로, 남한 가정에서는 필수품이라고 할만큼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가전제품이 북한 가정에서는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시장거래

농민시장을 통해서 구입한 물품 목록을 보면 대부분(84.2%)이 식료품이며, 특히 식료품 중에서도 식량, 쌀 등의 주식(40.5%)이 농민시장에서 암거래되는 품목 1위였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생활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민시장에서 구입한 물건 대부분이 식료품인데 비해, 농민시장에 내다판 물건 품목으로는 판 물건이 없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중국상품(6.3%), 집짐승(5.4%), 공업품(5.4%) 등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농민시장이라는 암거래시장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데, 그 거래모습을 보면 기초적인 생필품, 특히 식료품 마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물건들을 내다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농민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경우, 거래를 담당하는 주체로는 안해(주부)인 경우와 어머니(할머니)인 경우가 각각 23.0%와 22.3%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노동자, 농민(12.2%)이나 장사꾼(11.5%) 등 전문적인 거래꾼을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렇게 농민시장을 통해 구입한 물건이 불량상품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경우(42%)가 가장 많았는데, 공산품보다는 농산품 위주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불량상품을 구입했던 경우의 처리방법으로는 바꾸거나 환불받았다는 경우(41.9%)가 가장 많았지만, 교환불가능이라는 경우가 상당수(37.8%) 있었고, 그대로 사용하거나(9.5%) 버린다는 경우(10.8%)까지 합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보다는 이를 포기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량의 부족 자체가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을 열악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 또한 매우 조악하기 때문에 외제 물품에 대한 선호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북한 사회에서 특히 어느나라 제품이 선호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본제품(30.6%)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이 중국제품(17.1%), 러시아제품(10.7%) 순이었다. 북한으로 반입가능한 물품의 제조국 자체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몇몇 인접국가로 제한되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 제품에 대한 선호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비자의식

소비와 관련된 실제 생활모습 외에 북한에서 '소비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7.1%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소비자라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한 소비자의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부족이나 결핍이라는 문제가 소비의 가장 주된 문제인 북한 사회에서의 소비자의식은 남한 사회에서의 소비자의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생활비지출 및 관리

북한의 생활수준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북한 가정의 가계재무관리라는 것은 저축이나 투자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요소보다는 현재의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비 관리라는 현재지향적인 요소가 강하다. 실제로 이들 북한 가계가 생활비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대부분(92.9%)의 가계가 식비에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해, 북한 가계의 생활실태를 짐작케 한다. 생활비의 두 번째 사용처로 응답한 내

용을 보면 입는 것(57.4%)에 사용한다는 응답⁸⁾이 많아, 대다수 북한 가계가 생활비를 주로 식비에 지출하고, 식비로 지출되고 남은 약간의 돈을 의복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의복비로 지출되는 액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북한 가계에서 생활비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는 주부(안해)가 3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대주(본인, 28.1%)나 어머니(시어머니, 27.5%)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부부공동으로 생활비를 관리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4.6%에 불과해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단독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5세 이하의 경우는 어머니가, 49세 이상의 경우는 주부가 관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25세 이하 젊은 연령층의 경우 아직까지 가계 유지가 어머니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족구성 자체가 변화되거나 가계유지 역할이 어머니에서 주부로 이전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객관적으로 파악된 가계소득이나 지출액과는 별개로 응답자 스스로가 북한 주민의 평균과 비교해 자기 가계의 가정경제생활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응답을 보면, 이들 탈북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가계를 북한 주민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 주민 평균보다 자기 가계의 가정경제생활수준이 약간 높다는 경우(47.1%)가 반수 가까이 되고, 훨씬 높다는 경우도 16.8%나 되었다.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21.3%)까지 합하면 85.2%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평균 이상의 가정경제생활수준을 유지했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5) 자녀용돈관리

자녀 용돈관리에 있어서는,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41.0%)보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59.0%)가 많아 남한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의 평균 용돈액수는 30,82원이었다. 그

8) 생활비 사용처를 우선 순위에 따라 복수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 사용처와 별도로 계산된 수치임.

런데 평균 액수에 비해 편차(85,95원)의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아주 소액만 주는 가게도 있는 반면 비교적 큰 액수를 주는 가게도 있음을 보여준다.

6) 저축생활

생계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소비지출 외에 미래를 위한 저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저금을 전혀 안하는 경우가 59.1%에 달해 저축을 할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게는 얼마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저축을 하는 가게의 1년 동안의 평균 저금 액수는 2294,28원(표준편차 3324,08원)이었다⁹⁾. 액수가 얼마이든간에 저금을 하는 경우, 저금의 목적적으로는 국가 강요에 의한 경우가 4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발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자녀결혼(13.2%)을 위한 경우나 집안대사(8.8%)를 위한 경우, 재산 축적(8.8%)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집이나 피아노 등의 내구재 구입, 급할 때에 대한 대비, 자식이나 부모님을 위한 준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7) 혼례소비문화

북한에서의 혼례와 관련된 소비문화는 간소한 혼수마련 실태와 더불어 일상 소비생활에서의 빈곤함을 잘 보여준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평균 하객수는 약 68명(67,92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하객만 참석해서 간소한 예식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친척이나 친구의 혼사에 부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점으로는 일률적으로 금전으로 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부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북한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의 혼사에 낸 부조비 액수의 평균은 80,99원이었는데, 부조비에 있어서도 평균 액수에 비해 표준편차(147,54원)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가게의 경제형편 등에 따라 부조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혼사시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부조할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쌀(21.9%)로, 북한 사회에서 쌀이 얼마나 중요한 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부조 물품으로 2순위를 차지한 것은 옷감(17.1%)이었으며, 그 외에 술(10.5%), 시계(5.7%), 세간그릇(4.8%) 등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을 하면서 혼수로 장만하는 물건 품목을 보면, 신부측 혼수로는 이불(1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남편옷(6.4%), 이불장(6.4%), 가정생활용품 전부(5.3%) 등이 비교적 많았다. 신랑측 혼수로는 첫날 조선옷감(9.2%)과 이불 한 채(9.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0원 이하의 금전(7.3%)과 1500원내지 2000원 정도의 금전(5.5%), 500원 내지 700원 정도의 금전(4.6%), 처가택 식구예단(4.6%) 등이 많았다. 신부측에서 마련하는 혼수가 주로 생활에 쓰이는 일상 용품인데 반해 신랑측에서는 혼수로 현금을 장만해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북한에서도 결혼 이후의 살림살이 마련은 주로 신부측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의 시간생활양식

1) 생리적 시간

기상시각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19.2%가 5시 이전에 기상하며, 60%가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이른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 보면 남자들은 평균 6시 12분에 일어나는데 반해, 여자들의 평균 기상시각은 5시 29분으로 남자들보다 40분이상 빨리 일어난다. 이는 주부들이 열악한 취사환경 하에서 식사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탁아소에 맡기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9) 북한에서의 화폐의 명목가치는 실질적인 구매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탈북자들과의 심층면담에 기초한 선행연구(이기춘 외, 1997)에서 드러난 바 있다.

취침시각을 보면, 밤 10시 이전에 자는 사람이 28.2%이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 사람이 42.3%로 응답자의 70.5%가 11시까지는 잠자리에 들며 평균 취침시각은 10시 56분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의 취침시각은 10시 40분으로 남자들보다 20분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들은 아침에 많은 집안일을 해야 하므로 남자들보다 빨리 잠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5분이고 여자는 평균 6시간 50분으로 남자보다 20분 정도 수면시간이 적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고령자가, 도농간에는 농촌거주자의 수면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다. 식사시간은 하루에 55분으로 아주 짧은데, 식사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은 북한의 가족들이 각자의 바쁜 일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고 식사가 본래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면과 식사시간은 직장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시간배분이 먼저 이루어진 뒤 남는 시간이 할당된 것이므로, 이러한 생리적시간이 짧게 나타난 것은 바로 직장노동시간이 장시간인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노동시간

(1) 직장근무시간

근무는 평균 8시 2분에 시작하고 집단별로 차이가 없다. 직장종료 시각은 평균 5시 57분이고 남자는 6시 4분, 여자는 5시 54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0분 빨리 끝난다.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 54분으로 북한주민들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10시간, 여자가 9시간 55분으로 성에 따른 차이는 없다.

통근시간은 대체로 짧은 편으로 평균 41분이었으며 성별간에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별로는 차이가 있어 도시가 농촌보다 14분 정도 길게 나타났다. 통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도보가 가장 많아 응답자의 49.4%가 걸어서 통근하였으며, 자전거·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22.2%로 그 다음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버스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7.7%, 전철이나 전차가 10.8%, 지하철은 8.3%이었으며 승용차는 4.4%에 불과하였다. 통근시간이 1시간 이하이며 또한 교통수단이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인 것을 고려하면 집과 근무처까지의 거리가 대체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통계치를 통해서 본 북한 직장인들의 평균적인 생활 모습은 오전 7시경 집을 나가 7시 30분까지 출근을 하고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 경에 끝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 30조에서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주의 노동법 제 62조에서 노동자들에게 “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 시간이 10시간 가까이 되며 그 외에도 각종 노력동원, 회의, 학습에 동원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있으나(노동법 제 16조) 여자들의 평균 노동시간도 남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규정과 현실과의 괴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노력동원

정규적인 노동시간 외에도 노력동원시간이 노동시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력동원 횟수를 보면 월평균 3.7회이고 1회 동원시에 6시간 11분을 소비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한 달에 평균 22시간 36분 정도를 노력 동원에 소비하며, 이 시간을 직장노동시간과 합하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42분으로 상당한 양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력 동원 시에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농촌 지원으로 50% 이상의 응답자가 농촌지원을 나간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동원되는 활동은 건설, 보수 및 청소 등의 도시미화작업으로 34.8%의 응답자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타 소수 응답으로는 비료 생산, 식수 사업, 직장일, 군사 훈련 등이 있었다.

노력동원 등 바깥일에 자주 동원되므로 북한주민들이 집에서 쉴 수 있는 일요일은 한 달에 2번 정도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사노동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였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활동은 청소, 빨감준비로 39분이었고, 다음은 음식준비로 31분이었다. 청소, 빨감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은 북한의 연료사정이 열악하여 석탄이나 구멍탄, 나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 돌보기에 소비한 시간이 26분으로 작게 나타난 것은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는 것이 북한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시간은 성별로 크게 차이가 나서 여자가 3시간 37분, 남자는 1시간 26분을 집안일하는데 소비하였다. 북한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여 하루 10시간 가까이 직장노동시간에 보내고 있으므로 가사노동까지 합하면 하루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량뿐 아니라 주로 하는 집안일에도 남녀간에 차이를 보여 여자들은 음식준비(64분)와 빨래(61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반해, 남자들은 청소, 빨감준비(39분)와 자녀돌보기(23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남자들이 도와주는 집안일에 대한 응답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주로 구멍탄 찌는 일(61.9%), 나무패는 일(58.9%)과 같이 빨감 마련하는 일, 청소(44.9%), 터발 가꾸는 일(39.2%), 물 길어주기(22.8%)를 도와주고 있다. 이를 볼 때 북한 남자들은 일상적인 집안일은 하지 않으나 열악한 연료사정이나 주거환경에 기인한 힘든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급과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구현할 것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와 더불어 가사로부터의 해방을 주요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남녀의 가사노동 수행실태를 보면 여자들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전담함으로써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성들은 여성을 부엌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실제로 가사를 분담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부장제를 주체사상과 결합하여 통치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3) 여가시간

하루의 여가시간은 약 4시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시청으로 하루 2시간 정도를 소비하며,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대화에 1시간을, 신문·책읽기에 50분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정도의 경향을 보면 TV시청, 신문읽기, 가족과의 대화가 날마다 행해지는 가장 보편적인 여가이며, 운동·산책하기, 친구·친척 만나기, 장기·바둑·주패놀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비교적 자주 행해지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족과의 외식, 영화나 서커스 관람은 일년에 한두 번 정도로 드물게 행해지는 활동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북한 주민들이 여가 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보면, 친구나 이웃과 놀기(34.8%), 낮잠이나 휴식(20.3%)의 순이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희망한 사람은

<표 2> 여가활동 참여도의 경향

구분	활동내용
매일 하는 활동	TV 시청, 신문 읽기, 가족과 대화하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하는 활동	독서하기
한달에 한두번 이상하는 활동	운동·산책하기, 친구·친척만나기, 장기·바둑·주패 놀이
일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활동	가족과 식당에서 음식 사먹기, 영화·서커스보기

13.9%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차이가 있어 남자는 친구와 놀기(48.4%)를 바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낮잠과 휴식,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반면, 여자들은 낮잠과 휴식을 원하는 비율(30.3%)이 가장 높았고 친구와 놀기, 가족과 보내기,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응답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 외에 가사노동까지 수행하여 노동의 부담이 크므로 여가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미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25%로 극히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즉 개인 보다는 조직을 중시하고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취미생활은 인정하지 않는 집합주의적인 성향이 개인의 사고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주민의 모든 생활이 집단화되어 있으며, 모든 사회성원은 집단적 문화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여가의식에 영향을 주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생활시간에 대한 평가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직장일로 몹시 바빴다'는 응답이 56.3%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그의 '동원이 많아 바빴다'가 39.9%, '항상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가 44.8%를 차지하여 하루 일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노동과 노력 동원으로 매우 바빴다고 느끼며 휴식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았다'는 각각 25.9%와 20.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북한 주민의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부족한 생리적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시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어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성들보다 시간부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일로 몹시 바빴다', '집안일로 몹시 바빴다', '동원이 많아 바빴다', 그리고 '항상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

다'에서 모두 여자들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집안일로 바빴다'는 항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았다'에서는 남성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가부장적 전통이 유지되어 남성들은 집안일은 하지 않고 사회적 노동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시간부족을 덜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5. 탈북자들이 지각한 남북한 생활양식(가족·아동·소비·시간생활)의 차이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형식을 통해 남한에 와서 생활한 후 가족, 아동, 소비, 시간생활 중 북한에서의 생활과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였다. 탈북자들이 지각한 각 생활양식에서의 차이점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¹⁰⁾.

V. 결론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사회는 아직까지 남한과 유사한 측면도 상당한 부분 남아 있지만, 상이하고 독특한 생활양식을 보임으로써 남한과 구별되는 생활문화의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는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과는 다른 사회주의 이념체제에서 연유한 바 크지만, 근래에 와서 무엇보다도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경제상황의 악화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경제상황의 문제는 북한 생활문화가 지니고 있는 전통성을 해치고 근대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응답자들이 답한 내용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응답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시도하였다. 응답내용은 주로 남한사회에 대한 것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내용은 북한임을 별도로 지적하였다.

〈표 3〉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비하여 지각한 남한의 생활양식

구 분	내 용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생활이 자신과 가족중심으로 되어있다. - 북한과 가족생활에서 문화적 차이가 심하다. - 국가나 공동체 위주와는 달리 가정과 개인위주의 생활양식이다. - 개인이기주의 사상이 퍼져 있다. - 물질적으로 풍요는 누리지만 사회나 인간관계가 너무 이기적이다. - 사람이 배가 부르고 자유롭다고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 가족제일주의이다. - 노인들의 입는 문제, 먹는 문제가 북한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 남한의 가족들을 보면 두고 온 혈육들에 대한 생각과 외로움이 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 불륜은 북한보다 더 심하고 남한처녀들은 북한처녀들에 비하면 너무나 대담하다. - 처녀들의 사기나 부도덕한 면은 심각한 상태이다. - 남자를 열렬하고 감옥에 넣는 것은 다 여자들이다. - 여자들이 술을 자주 마신다. - 가정생활에 대하여 누구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것이 좋다. - 주부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주고 여성들의 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다.
아동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남한의 아동들은 북한의 아동들보다 더 영양 많고 좋은 음식과 간식을 섭취하며 부모의 관심 속에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높은 관심과 열성이 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은 때로 지나친데, 학원을 여러 곳에 보내는 등 사교육비가 크고, 과외학습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 남한의 부모들이 아동에게 친절하고 어루만지는 등 부드럽게 대하며, 육설을 하지 않고, 자식을 귀하고 곱게 키우며, 예절 교육을 잘 시키는 등 생활에 찌든 북한 부모들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부모들이 자식을 과잉보호하고, 모유 수유보다 우유 수유를 하며, 의존성 키우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다. - 북한의 아동들은 부모가 남한의 부모들보다 잘 못해 주어도 자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데, 남한의 아동들은 과잉보호하여 키워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 청소년 자녀의 남녀 교제에는 남한 부모들이 북한 부모들보다 덜 간섭한다. - 남한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험하다.
소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란주점, 노래방, 웨딩드레스 등이 대표적인데 과소비사회이며, 전기나 휴지를 너무 량비해서 가슴이 아프다. - 모든 가정에 전자제품이 다 있고 전화기도 있고 한 사람의 로임을 가지고 가족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 여기서는 한 달 생활비로 먹고 입고 저금하며 살 수 있다. - 승용차가 너무 많아 복잡하다. -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사회이고 만사형통할 수 있으므로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 한국의 일반층이 북한의 부유층보다 생활이 낫다. - 소비수준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다. - 생활필수품이 너무 많이 있다. - 자기 능력에 따라 마음대로 물질소비를 할 수 있다.
시간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사람들은 주말이면 식구끼리 여가생활을 즐긴다. -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 국민의 문화지식과 수양이 북한보다 높고 다양하다. - 남한과 북한은 생활시간상의 차이가 크다. - 남한과 북한은 생활수준 만큼 문화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 지금 북한주민 대다수는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정서생활을 할 여유가 없다. - 남한은 휴식 때 마음껏 다양한 형식으로 휴양할 수 있고 문화오락시간을 갖고 싶은대로 가질 수 있다. - 북한에서는 보고 싶은 외국영화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 교통에 대해서 조금도 넘겨하지 않고 아무 곳이든지 여행할 수 있다. - 가정일을 무거운 부담없이 편하게 하고 전기를 풍부하게 쓰고 전자제품을 거의 모두 갖추고 산다. - 모든 것이 너무 자유로운데 책임을 모두 본인이 져야 한다.

첫째, 북한 주민의 가족생활양식은 사회주의 이념 및 이에 기인한 사고방식의 영향과 전통적 의식의 혼재로서 상당히 복합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즉 가정의 혁명화 사업으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생활의 모습이 변화된 측면도 많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의식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측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위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며, 세대간의 관계질서에서도 그러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둘째, 북한의 아동생활양식은 북한 사회주의 인간형의 양상이라는 대전제에 매우 충실하게 계획되고 통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봐야 하는데, 공식적인 제도교육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비공식적인 가정교육이나 양육에서는 전통적인 측면이 많이 잔존해 있다. 그리하여 학교나 유치원, 탁아소 등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순응성 위주의 아동의 사회화를 실시하지만, 가정에서는 자녀위주의 가치관,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 효의 강조 등에서 혈연위주의 가족가치, 유교중심문화 등의 뿌리 깊은 영향을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소비생활양식은 극도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제한되고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곤란과 낮은 생활수준은 가족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 예컨대, 이와 같은 일상소비생활에서의 빈곤함은 특별한 의례와 행사로 여겨지는 혼례문화에서도 드러난다.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부부 및 고부간의 갈등이나 친척관계의 소원 등을 유발하고, 사회전반적으로 물질주의적 성향의 팽배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의 시간생활양식에서 드러난 양상은 북한주민의 통제가 생활시간의 통제를 통해 엄격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해진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 오히려 바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상도 줄 수 있는데, 북한주민들은 휴식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남성우위와 성별의식 등으로 인해 부인만의 가사책임과 직장여성의 과도한 이중

노동부담, 가정기구나 가정용품의 결여 및 열악한 가사노동환경과 이로 인한 긴 가사노동시간은 북한 가정생활에서의 여성문제의 심각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사회의 생활양식에서는 물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한 갈등이 가정생활내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에까지 파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은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연유한 오랜 통제와 더불어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극심한 물질의 결핍, 기본적 욕구 충족조차 어려운 낮은 생활수준에서 오는 물질에의 가치 부여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과소비에 기반하여 강한 물질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남한과는 이런 점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단초를 모색해 보려는 취지에서 남북한 이질화 현상의 양상을 주로 북한 사회의 생활양식(가족, 아동, 소비, 시간)을 통해 경험적 조사분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로 북한사회와 남한사회를 대비해 봄으로써 이질화를 명백히 하면서 동시에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후속연구로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한의 생활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질적인 두 사회체제의 성공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1996).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2) 내외통신(1994). 북한조감: 북한상식집. 서울: 내외통신사.
- 3) 서동익(1995). 인민이 사는 모습(제2권). 인천: 자료원.
- 4)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생활문화에 대

- 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제12차 춘계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5) 윤택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제12차 춘계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6)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 김대년 · 박영숙 · 최연실(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대안가정학회지 35(6): 289-315.
 - 7) 이문웅(1996).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전통문화: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학교 출판부.
 - 8) 이은죽(1993).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 9) _____(1997).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통일시대의 정신적 구심점과 하부구조". 이은죽 외 저. 남북한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 10) 이용필 외(1992). 남북한통합론. 서울: 인간사랑.
 - 11) 이장호(1997).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방향과 과제". 경실련 통일협회(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서울: 심지.
 - 12) 이효재(1994). "이데올로기와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가족과 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 13) 장하진(1996). "남북한의 가족제도 및 여성의 역할".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4) 조형(1997). "남과 북이 더불어 사는 연습". 경실련 통일협회(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서울: 심지.
 - 15) 조혜정(1996).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16) 주강현(1994).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북한생활풍습 50년사. 서울: 대동.
 - 17) _____(1997). "북한의 문화: 전통성과 현대성의 문제". 경실련 통일협회(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서울: 심지.
 - 18) Baudriard, J. (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Paris: Gallimard. 이상률(역)(1991). 소비의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 19)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on action*. Vol. 1 & 2. Polity Press.
 - 20) McCracken, G. (1988). *Culture and consump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